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빠른 정답

1	2	3	4	5
④	②	⑤	②	②
6	7	8	9	10
①	③	④	②	①

1.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 [제시문 분석] 같은 이론 윤리학, 음은 실천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 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 이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 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며, 규범 윤리학은 이미 규범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현실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모두 동의하지 않을 진술이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규범 윤리학으로서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규범적 가치 판단을 담은 결론 도출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여긴다.

2.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②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① 도가 사상에서 무위(無爲)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도가 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지 않는다.
 ② 도가 사상에서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도(道)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③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④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⑤ 도가 사상에서는 인위적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3.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덕 윤리의 입장이다.
 ②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③ 칸트는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칸트는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⑤ 칸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②

- [제시문 분석] (가)는 불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 사상에서는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교 사상의 입장에 맞지 않다.
 ② 불교 사상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만 들어진다.
 ③ 도가 사상에서는 시비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고, 인위적 규범을 멀리하여 이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도가 사상의 입장에 맞지 않다.
 ⑤ 도가 사상의 입장이 아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다고 본다.

5. 아퀴나스와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정답 ②

- COMMENT ≒ 선지에서 흥분을 하면 안 됐다.
 [제시문 분석] 같은 아퀴나스, 음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가. 아퀴나스의 입장이 아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도덕 원리의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다. 아퀴나스와 칸트는 모두 의무론적 관점에 있는 사상가로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사회적 효용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고 보았다.
 라. 아퀴나스와 칸트의 공통 입장이다.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인간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하는 대상이다. 칸트 역시 실천 이성을 갖춘 인간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 [제시문 분석] 같은 이론 윤리학, 음은 기술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객관적·사실적·경험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된 역할로 본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인간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 즉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이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언어 분석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규범 윤리학, 그중에서도 특히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기술 윤리학이 가치 중립적 성격을 띠는 것은 맞지만,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 아니다. 이론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관습이 가치와 무관한 사실일 뿐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론

윤리학이 볼 때 특정 사회의 도덕적 관습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관습이 '가치와 무관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가치와 관련 있는 사실인 도덕 관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 노자, 석가모니, 공자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㉓

[제시문 분석] 같은 도가 사상이 노자, 음은 불교 사상이 석가모니, 병은 유교 사상이 공자이다.

[선지 분석] ① 도가에서는 도(道)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분별적인 지식을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불교에서는 해탈을 위해서는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③ 공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충(忠)과 서(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공자가 강조하는 충서(忠恕) 개념은 좀 챙겨두는 게 좋다.

• 충: 거짓이나 꾸밈없이 자신의 참된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서: '내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推己及人]'는 뜻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논어(論語)의 구절을 통해 잘 드러난다.
- 비상교육 교과서 20p -

④ 도가와 불교 모두 동의하지 않을 진술이다. 도가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면서, 인위적 규범을 멀리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회복해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성(佛性)을 타고난다고 보면서,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⑤ 도가의 입장이 아니다. 도가에서는 예(禮)를 인위적 규범으로 간주하고 배격한다.

8. 공자와 장자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㉔

COMMENT 만물의 평등성은 도(道)의 관점으로 볼 때만 인식할 수 있다. [제시문 분석] 같은 유교 사상이 공자, 음은 도가 사상이 장자이다.

[선지 분석] ① 공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사회적 규범인 예법을 배우고 익혀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공자는 서(恕)의 자세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7번 문항 ③ 해설 참조).

③ 도가 사상에서는 제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도가 사상에서 분별 의식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가 사상에서는 분별 의식을 버리고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사물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도가 사상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볼 때 만물의 평등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사물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 상대적인 귀천의 분별이 생기게 된다.

⑤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가 사상에서도 '수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물론 그 수양은 인위적인 수양이 아니라 인위를 덜어내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수양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좌망(坐忘), 심재 등이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수양의 방법이다.

9. 벤담과 밀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㉔

COMMENT 생윤리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항 문항. [제시문 분석] 같은 벤담, 음은 밀이다.

[선지 분석] ①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벤담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을 감소키셔도 괜찮은, 더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바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을 감소시키므로써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에, 벤담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결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따라서 도덕적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어떤 행위든 의무를 동기 삼아야만, 즉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가 의무와 일치한다고 해도, 그 행위의 동기가 의무 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경향성이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모든 인간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지지하였다. 칸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 정칙을 제시하였다.

10. 칸트와 밀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㉔

[제시문 분석] 같은 칸트, 음은 밀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는 결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도덕성이 그 행위가 낳는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④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교재에 읽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첨부해 두었다.

순전히 도덕적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훼손은 진실성에 대항하는 것, 즉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로 타인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이 쾌락의 특유성이 아니므로 고려 항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것은 한낱 영리함에서의 실수로서 도덕적 준칙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준칙과 상충하는 것일 터이고, 전혀 의무의 훼손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원인은 한낱 경솔일 수도 있고, 선량함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 실제로 선한 목적이 의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적을 좇는 이러한 방식은 그 형식만으로도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범죄이고, 자기 자신의 눈에 인간을 경멸스럽게 만드는 천박한 것입니다.
- 칸트, 2022학년도 수능특강 27p 1번 문항 -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 하시오.